

# 스케일업 향한 도전... 투자유치 기업·투자사들 열기 뜨겁다

**이노비즈협회, 세번째 IR 행사**  
3대 1 경쟁률 속 '5개 혁신 기업'  
VC·증권·엔젤투자사 관심 집중  
鄭회장 "다양한 기술 사업화 필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개인 정보 침해 등 법률적 이슈는 없나요." (A 투자회사 관계자)

"현재 모든 특하는 미국과 일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천특허를 갖고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어야겠다는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IR 피칭 참여 B사 대표)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3층 비파룸. 이노비즈협회가 마련한 'INNO-Wave IR' 행사장에 6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였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 국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투자를 받으려는 혁신기업들과 투자사들의 대화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IR 행사를 마련, 이번이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앞줄 왼쪽 4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회 INNO-Wave IR' 행사에서 투자유치 희망기업, 투자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세번째다.

정광천 협회장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인사말을 전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고객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우수 기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번 IR 행사는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우수한 연구소 기업들이 '혁신의 아이콘'인 이노비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IR에는 ▲트윈위즈(액상 항공·

항바이러스 소재 제조) ▲로오딘(고효율 인광 청색 OLED 소재·소자 제조) ▲메디케어텍(수술용 의료기기 벤더블레이드 제조) ▲메이즈(AIoT 기반 오프라인 개인화 트래킹 서비스) ▲유틸플(AR·VR 투과용 가변필름 제조)이 참여해 회사를 알렸다.

투자사로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지비벤처스, 블리스바인벤처스,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패스파인더에이치, 선보엔젤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지주, 하나증권 등 공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

가 두루 참석했다.

기업들 소개는 10분, 질의응답은 8분의 시간이 각각 주어졌다.

트윈위즈 김창수 대표는 "기존의 고체형 항공 소재는 분말이나 펠렛 형태로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색 투명의 액상형 항공·항바이러스·항공광이 소재인 '트윈온(TWINON)'을 개발하게 됐다"면서 "위생과 청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스마트폰, 가전·가구 필름,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도어락, 차량용 필름, 디스플레이, 기능성페인트 등 사람 손이 닿는 모든 영역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텍 전한용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블레이드 일체형 내시경 수술장치는 이비인후과의 만성비염과 축농증 수술이 1차 타깃 시장"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에선 블레이드를 자주 교체하고 1회용이어서 환경적 문제가 많았다. 또 포괄수거 때문에 병원이 적자를 봐야하는 등 환자, 병원 모두가 불편했다. 하지만 내년 중·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제품은 기존의 단점을 극복했다. 국내 시장에 레퍼런스를 확보한 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판매하고 중국, 일본,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즈 송기선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매장 방문객 여정 수집 솔루션은 '동일인 매칭 기술'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비식별처리 데이터는 개인정보에서도 자유롭게 때문에 F&B매장, 대규모 박람회·전시회, 팝업스토어 등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같은 정량적 KPI(핵심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노비즈협회는 벤처투자사와 함께 이날 발표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및 차별성, 시장 점유율과 매출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정 회장은 '이노비즈R&D 플랫폼 제공'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 R&D 과제 기획·제안과 기술혁신 이노비즈기업의 R&D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추진 등을 실행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 개최한 '이노웨이브(INNOWAVE)'를 확대 개편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2개사가 42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만족도 94%... 6년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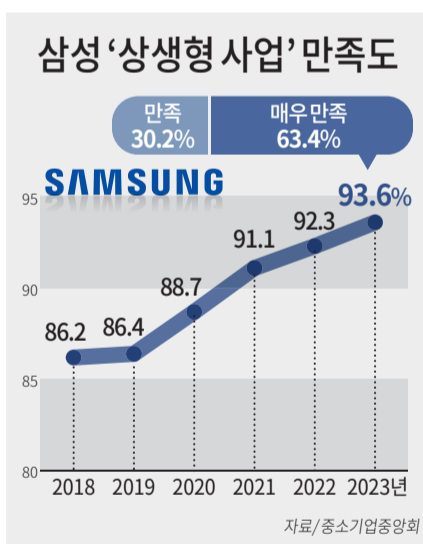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195개사 대상 설문  
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 '큰 힘'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 추가정책 필요

삼성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니 달랐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도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93.6%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다.

특히 삼성이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6년간 계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과 추진한 '2023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3.6%가 삼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인 63.4%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시스템·자동화 구축(43.5%) ▲제조현장 혁신(32.9%)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1.1%) 등을 꼽았다.

관련 지원사업에선 삼성의 200여명 전담 멘토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혁신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만족

도 역시 92.4%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MES(생산관리), ERP(기업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IoT(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89.5%로 높았다.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72.7%)도 높은 수준이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생산현장에 적용효과 높음(43.5%) ▲생산현장 모니터링 강화(37.0%)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16.9%) 등의 순이다.

또한, 참여 중소기업의 97.5%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후 무상 A/S 요청 시 조치가 '원활했다'고 응답해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지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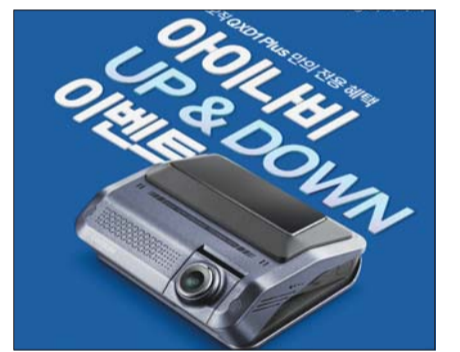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19.8%는 매출이 평균 24억1000만원 증가했다. 참여기업 10.5%는 고용인력이 평균 4.3명 증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정부지원금이 기업에서 목

표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적정했는지에 대해선 '부족하다'(52.3%)와 '적정하다'(47.7%)의 의견이 갈렸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지자체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48.8%) ▲지역별, 업종별 맞춤 지원사업 확대(21.7%) ▲기초 수준에 대한 정부지원 재개(17.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대표적인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을 위해 고도화 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기초 체력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에 '지자체 협업사업', K-푸드 육성을 위한 '식품업 지원사업' 등 단계별 업종별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팅크웨어가 연말 전사 프로모션 '아이나비 Up & Down'을 진행한다.

### 팅크웨어 아이나비 QXD1 Plus 연말 프로모션 진행

메모리카드 64→128GB 업그레이드

팅크웨어가 첨단 AI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Plus'를 대상으로 '아이나비 Up&Down' 연말 전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티크웨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 말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나비 Up&Down' 프로모션은 '아이나비 QXD1 Plus' 64GB 메모리카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28GB 메모리카드로 업그레이드해 2배 용량의 무상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블랙박스 전용 보조 배터리 '아이볼트'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나비 QXD1 Plus'는 자율주행 플랫폼 암바렐라 CV 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아이나비 Vision AI'가 탑재된 최첨단 블랙박스다. 해당 제품은 50만 건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딥 러닝해 기존보다 객체와 차량 번호판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촬영한다. /김승호 기자

## 강원랜드, ESG 우수 중소기업 포상·상생협력기금 출연

지역사회와 ESG 경영 혁신

강원랜드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강원랜드와 4일 강원랜드 본사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 포상 및 2024년 협력사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랜드는 협력사들의 ESG 경영 도입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강원랜드는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으로 평가된 우수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 고한사북남면청년주민, 석광산업, 우리주민, 코주부프레쉬류5

개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100만원씩의 성과공유금을 지급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해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과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동반위는 ESG 지표 개발, 교육, 진단 및 현장 실사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와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